

北韓體制的 變化展望*

鄭 大 圭

- | | |
|---------------|------------------|
| 1. 序 論 | 4. 金正日權力承繼와 體制變化 |
| 2. 北韓體制的 特性 | 5. 北韓의 政策變化展望 |
| 3. 北韓體制的 變化要因 | |

1. 序 論

世界的 차원에서의 冷戰秩序 및 冷戰構造의 崩壞와 소련을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圈의 民主大變革의 거센 물결이 韓半島로 도도히 밀려오고 있다.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美蘇頂上會談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展開된 고프바초프 蘇聯共產黨 서기장의 『新思考』政策은 美·蘇간의 軍事的 경쟁을 지양하고 平和共存을 토대로 한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世界秩序를 闡明하였다. 이때부터 社會主義國家들은 體制變革이라는 革命的 變化的 渦中에 휩싸이게 되었다.

1989년에 폴란드를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은 自由化·開放化·民主化의 국민의 要求에 맞추어 共產黨 1黨獨裁와 中央執權의 計劃經濟로 특징되는 社會主義體制를 포기하고 政治의 多元主義와 市場經濟制度를 수용함으로써 스탈린式 全體主義的 社會主義體制的 終熄을 告하였다.

이로 인해 獨逸統一이 실현되었고 1991년 6월에는 東歐社會主義圈의 軍事同盟體인 바르샤바條約機構와 經濟同盟體인 東유럽 經濟相互援助協議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2會議에서 主題發表한 것임.

會(COMECON)도 완전 解體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歷史의 거대한 물결이 점차 波高를 더하여 韓半島에 밀려오기 시작하여 地球上에 마지막 남은 冷戰의 殘滓, 南北韓 分斷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內외의 목소리가 共鳴되고 있던 차에 蘇聯에서 급작스러운 政治事變이 발생, 政治的 民主化와 과감한 經濟改革 措置에 머뭇거리던 소련이 마침내 改革·開放의 걸림돌이었던 共產黨을 해체하고 市場經濟制度를 도입하여 새로운 自由民主國家의 모습으로 變貌함으로써 소련에 軍事的·經濟的으로 크게 依存하여 온 북한에게 매우 不利한 상황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統一의 外部環境이 너무 빠른 속도로 變化하기 때문에 그것은 韓半島 平和와 統一達成에 그만큼 빠르게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對應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國은 1988년 이후 南北韓 關係改善과 平和統一의 轉機를 마련코자 『7.7宣言』 및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잇달아 내놓는 한편, 北方政策을 과감히 추진하여 상당한 結實을 맺고 있다.

韓國은 南北韓 쌍방이 서로의 理念과 制度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土臺 위에서 상호 交流와 協力을 통해 共存共榮 關係를 도모하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時代的 要請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現體制는 남한과는 달리 世界的 차원의 새 潮流가 북한에 미칠 수 있는 衝擊을 줄여 主體型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각종 監視組織을 동원하여 社會統制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思想敎養事業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金正日是 지난 5월 5일 勞動黨中央委 책임일꾼들에게 『人民大衆 중심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라는 談話를 통해 “오늘날 더욱더 악랄해지는 帝國主義國家들과 反動들의 反社會主義的 策動을 짓부시자”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金日成도 지난 7월 24일 함흥에서 北韓을 방문한 朝·日友好 促進議員聯盟代表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地球上의 한 나라이므로 세계움직임에 맞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깃발만은 지키겠다”

고 박힘으로써 體制守護의 意志를 분명히 했다. 즉 루마니아事態가 北韓에서 再現되는 것을 미연에 防止하자는 것이다.

또한 獨逸統一現狀을 보고 남한으로의 吸收統合의 危險을 느끼고 과거 東西獨間에 이루어져 왔던 關係類型의 적용을 排除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제4차 南北高位級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接觸에서 남한측이 제시한 『南北韓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와 『남북한 通信·通行·通商 및 經濟協力에 관한 合意書』案들에 대해 서독의 東獨吸收統合方式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라고 하면서 극력 反對하였다.

그러므로 이같은 北韓의 소극적인 改革·開放姿勢와 對南對決姿勢로 보아 南北關係가 改善되고 統一의 실마리가 풀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姿勢變化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韓半島 平和와 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의 態度變化가 있으려면 북한이 體制的 水準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어렵다. 즉 政治的 民主化 및 과감한 經濟改革 등 적극적인 改革·開放措置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東獨이나 루마니아事態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表面的으로 安定된 것처럼 보였던 社會主義體制도 舊秩序를 고수하고 새秩序에 抵抗하여 갈데까지 버티다가는 마침내 하루 아 고수하고 새秩序에 抵抗하여 갈데까지 버티다가는 마침내 하루 아침에 崩壞되어버릴 수 있다는 歷史的 敎訓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결국 體制變化의 중대한 국면을 自意든 他意든 맞을 수도 있다.

더욱이 北韓은 현재 분단이후 최악의 經濟狀況에 직면해 있다. 1990년도에는 經濟가 負의 成長(-3.7%)을 하여 國民所得이 남한의 1/10 水準(231억불), 外債가 78.6억불, 貿易規模는 남한의 1/30 水準(46.4억불)에 불과하다.¹⁾

이같은 심각한 經濟難으로 인해 住民不滿을 억제할 수 있는 社會統制力이 상실될 危機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外部環境 변화로부터 받는 改革·開放化의 압력, 남한으로부터 오는 南北關係改善의 압력, 北韓內部

1) 統一院, 北韓經濟 綜合評價, 1991년 8월 發表.

의 극심한 經濟難으로 인한 社會統制力의 상실위기 그리고 金正日에게 순탄하게 權力을 移讓해야 하는 後繼體制構築에 따르는 政治負擔加重 등으로 더이상 隨機應變의·彌縫의인 政策對應으로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限界點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北韓은 몇가지 注目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동안 일관되게 主張해 오던 『南北韓 單一議席下의 유엔加入』方案을 철회하고 태도를 바꾸어 별도의 유엔 加入案을 유엔에 提出함으로써 南北韓이 다같이 유엔에 加入하게 되었다. 또한 國際原子力機構의 核安全措施協定에 假署名(1991년 7월 16일, 비엔나)하면서 國際原子力機構의 核査察收容을 표명하고 일본과의 修交協商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關係改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같은 對外政策變化는 그 意圖가 남북한 關係變化를 당분간 猶豫시키는 遲延戰術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北韓이 취해온 對外 및 對南關係의 梗塞一邊倒 態度에서 상당히 누그러졌다는 점에서 향후 北韓體制變化에 밝은 신호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제 北韓의 政治的 將來는 統一을 熱望하는 우리 모두의 주요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本 執筆者也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主觀的 態度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먼저 밝혀둔다.

研究는 다음의 順序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北韓體制는 어떠한 特性을 지니고 있어 이토록 오랜동안 一人權力體制가 維持될 수 있었으며 또한 變化를 막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北韓體制를 變化시킬 수 있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北韓體制는 變할 것인가?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2. 北韓體制的 特性

지난 46년간 北韓은 金日成의 唯一的 支配下에 대체로 안정되게 統治되어 왔다. 이는 근대 世界史에서 最長記錄이다.²⁾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들

2) 스탈린31년, 티토35년, 모택동 27년, 호자40년, 차우셰스쿠24년.

에게 權力을 대물림하려하고 있다.

全體主義的 社會主義國家들 모두가 部分的 또는 完全하게 변화하였는데 유독 北韓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特性을 政治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 經濟的 特徵, 南韓과의 關係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政治이데올로기와 統治體制

政治이데올로기는 既存體制에 대한 抵抗意志의 표현으로 형성된다. 한 時代에 당면한 여러가지 現實의 矛盾과 社會的 不條理에서 오는 弊害가 없는 理想郷을 향해 體系의으로 형성되는 行動綱領이 政治이데올로기이다.³⁾

政治이데올로기는 그 推進勢力들이 改革을 支援할 수 있는 位置에 올라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改革推進의 指針을 설정해주는 指導理念이 되고 그들의 支配를 正當化시켜주는 說得의 論理가 되며, 挑戰하는 새로운 革命이데올로기에 대한 防禦의 理念體系가 된다. 그러므로 支配의이데올로기는 그 社會의 모든 領域을 統制한다. 社會의 發展方向도 速度도 모두 그 統制下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支配의 政治이데올로기가 새로운 社會變動推進勢力을 통제할 수 있는 能力을 상실할 때 社會葛藤은 고조되고 變化는 새로운 틀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支配의이데올로기가 緻密하게 구성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敎條的일수록 이데올로기의 硬直性은 강하며 따라서 衝突도 破壞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北韓社會를 지배하고 있는 金日成主體思想이라고 하는 政治理念을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은 憲法 제4조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指導의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金日成主體思想은 人民大衆, 黨, 首領의 3가지 要素를 敎條하게 理論體

3)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特徵으로서의 主體思想 考察은 서강대학교 李相禹 교수의 「韓國의 安保環境, 제2집(중보판), 1986년」冊子의 pp.369~412를 인용하여 整理한 것이다.

系化하여 金日成一人支配體制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主體思想은 인민대중의 政治的 自覺을 높이기 위한 黨의 『革命的 領導』를 혁명의 基本條件으로 하고 있으며, 『勞動階級の 탁월한 首領』이 勞動階級과 인민대중의 根本要求와 利益을 반영한 思想을 내놓고 그것을 指導의 指針으로 하는 黨을 創建하고 그의 革命的 領導를 실현함으로써만 勞動階級은 비로소 『自主的 革命階級』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大衆에 대한 黨의 領導는 本質에 있어서 首領의 領導이다. 黨이 勞動人民大衆을 領導한다는 것은 결국 全黨과 全體動勞大衆을 首領의 두리에 하나의 思想意志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首領의 領導를 따라 組織的으로 鬭爭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公公然히 一人專制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北韓社會에 있어서 政治發展의 目標과 政治活動指針을 결정해주는 最高指導理念이며, 社會構成員 모두의 日常生活의 行爲準則을 결정해주는 道德規範이고 行爲의 善惡을 가려주는 宗教가 되고 있다.

이렇듯 主體思想은 北韓의 絶對的 支配이데올로기로서 ①金日成唯一獨裁體制에 正當性을 부여하고 ②金正日權力承繼를 合理化시켜 주며 ③大衆動員體制를 강화시키는 理論的 道具가 되며 ④對外的으로 主體路線을 표방함으로써 社會를 閉鎖化시키는 논거가 되며 ⑤對南鬭爭路線을 合理化시켜 주는 總體的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主體思想은 처음부터 金日成集團이 統治權을 장악한 후 이를 正當化시켜 주는 理論으로 만들어진 防禦的 理念體系이기 때문에 改革과 變化를 拒否하게 된다.

따라서 世界史的 흐름으로 밀려오고 있는 民主化・自由化를 위한 改革・開放의 요청은 主體思想과는 근본적으로 相馳되고 있다.

오늘날 主體思想은 北韓을 지키는 堡壘이며 北韓人民의 精神的 結束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主體思想을 支配이데올로기로 한 北韓의 政治權力集團은 경직된

少數集團으로 이루어져 있다. 權力的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勞動黨政治局委員(후보위원 포함)과 秘書를 歷任한 인물은 1次黨大會(1948년 8월)이후 지금까지 모두 54명에 불과하며, 黨中央委員會 위원으로 選出되었던 인물은 347명이며, 國家의 政權機關의 경우도 主席, 副主席, 中央人民委員, 總理, 副總理를 歷任한 인물은 54명, 部長(장관에 해당), 委員長(장관급)을 歷任한 인물은 203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 거의 모두가 黨·國家機關의 職責을 겸직했던 점을 감안하면⁴⁾ 현재까지 北韓을 통치해온

〈表1〉 歷代 黨大會 黨中央委員들의 職業 및 經歷別 背景

黨대회	직업별	당료	군인	행정 관료	대의 원	교육 인	언론 인	문예 인	외교 관	농업	기타	미상	계	중앙 위원 (유임)
제 1차	위원수	17	9	2	·	·	1	2	1	1	·	9	42	
	비율(%)	40.4	21.4	4.8	·	·	2.4	4.8	2.4	2.4	·	21.4	100	
제 2차	위원수	17	12	14	8	7	3	3	1	·	3	5	67	28
	비율(%)	25.4	17.9	20.9	11.9	1.5	4.5	4.5	1.5	·	4.5	7.4	100	66.7
제 3차	위원수	18	12	25	5	2	1	1	2	·	4	1	71	32
	비율(%)	25.4	16.9	35.2	7.1	2.8	1.4	1.4	2.8	·	5.6	1.4	100	47.8
제 4차	위원수	32	18	19	1	1	1	3	7	·	3	·	85	29
	비율(%)	37.6	21.2	22.4	1.2	1.2	1.2	3.5	8.2	·	3.5	·	100	40.8
제 5차	위원수	34	26	27	3	6	1	2	5	·	4	9	117	32
	비율(%)	29.1	22.2	23.1	2.6	5.1	0.8	1.7	4.3	·	3.4	7.7	100	37.6
제 6차	위원수	48	31	33	5	3	2	3	9	·	3	7	144	74
	비율(%)	33.3	21.5	22.9	3.5	2.1	1.4	2.1	6.2	·	2.1	4.9	100	63.2
제6기 제14차 전원 회의	위원수	62	33	46	5	6	1	4	11	·	4	6	178	127
	비율(%)	34.8	18.5	25.8	2.8	3.4	0.6	2.2	6.2	·	2.3	3.4	100	88.2

4) 최근에 와서는 政權機關의 役割이 많아 黨·政 兼職現狀이 사라지고 있다.

最高支配層의 權力엘리트 充員은 실제 300명 내외의 少數集團內에서의 交替에 불과하다. 그러나 相互交替의 頻度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⁵⁾

이들 少數集團의 구성은 점차 軍出身이 줄어들고 黨官僚와 政務院(행정부) 출신이 比重을 높혀가고 있으며(表1참고) 執權層은 초기의 革命世代가 老齡化되고 있어 新世代의 충원이 時急하며(表2참고) 充員待機人物들은 거의 金正日과 같은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出身들이다.⁶⁾

〈表2〉 歷代 黨大會 黨中央委員들의 年度別 背景

당대회	연령별	30세 미만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 64	65 ~ 69	70 ~ 74	75 ~	미상	계
제 1 차	위원수	·	3	5	9	8	2	1	·	·	·	·	14	42
	비율(%)	·	7.1	12.0	21.4	19.0	4.8	2.4	·	·	·	·	33.3	100
제 2 차	위원수	1	5	6	10	18	1	1	1	·	·	·	24	67
	비율(%)	1.5	7.5	9.0	14.9	26.8	1.5	1.5	1.5	·	·	·	35.8	100
제 3 차	위원수	·	·	1	11	15	10	6	3	1	1	·	23	71
	비율(%)	·	·	1.4	15.5	21.1	14.1	8.5	4.2	1.4	1.4	·	32.4	100
제 4 차	위원수			4	12	10	19	9	2	3	1	·	25	85
	비율(%)			4.7	14.1	11.7	22.4	10.6	2.4	3.5	1.2	·	25	85
제 5 차	위원수			2	8	31	8	13	8	3	1	2	41	117
	비율(%)			1.7	6.8	26.5	6.8	11.1	6.8	2.6	0.9	1.7	35.1	100
제 6 차	위원수			1	1	2	22	39	8	10	5	4	5	144
	비율(%)			0.7	0.7	1.4	15.3	27.1	5.5	6.9	3.5	2.8	36.1	100
제6기 제14차 전원 회의	위원수					1	1	13	40	30	7	11	75	178
	비율(%)					0.6	0.6	7.3	22.5	16.8	3.9	6.2	42.1	100

5) 統一院, 北韓概要『政治編』, 1990년.

6) 고우환, 권오윤, 『北韓의 權力엘리트 充員과 權力變動에 관한 研究』, 北韓·統一院 研究 論文集(정치분야), 統一院, 1990년 12월, pp.285~294.

앞으로 金正日權力繼承 過程에서 급격하고도 대폭적인 人事移動이 不可避하며 이같은 權力核心部の 世代交替는 극심한 權力鬭爭을 야기할 素地를 안고 있다.

(2) 經濟的 特徵

북한은 『經濟에서의 自立』이라는 主體經濟에 입각, 自力更生生産原則下에 重工業優先政策과 생산의 量的 增大만을 도모하는 外延의 成長方式만을 채택하여 왔다.

自力更生이란 生産手段에 대한 需要를 기본적으로 自體內에서 충족시키고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物質的 條件을 자체내에서 解決한다는 것이다.⁷⁾

自力更生은 實踐段階에서 閉鎖的 自給自足經濟體制(Autarky)로 具體化됨으로써 資源이 부족한 條件下에서 國家間 資源과 商品의 交流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利益을 얻지 못함은 물론, 先進技術과 海外資本의 도입을 源泉의으로 봉쇄시킴으로써 技術落後, 資金不足, 設備老朽, 이로인한 成長鈍化를 招來하게 하였다.

북한은 重工業을 『生産手段을 주로 生産하는 工業部門들의 總體』라고 定義⁸⁾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重工業은 生産의 骨格體系를 이루고 勞動道具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物質的 富를 창출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은 農業·輕工業·漁業 등 여타 産業部門과 심각한 不均衡問題만 남게 하였다.

또한 북한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이 그랬던 것처럼 經濟의 外延의 成長方式과 中央執權의 計劃經濟管理體制를 채택함으로써 合理性和 效率性보다 政治的 合目的性을 더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強壓的 經濟動員으로 『천리마運動』, 『80년대 速度創造運動』, 『3大革命 붉은기 爭取運動』등을 벌리

7) 『우리당의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 “朝鮮勞動黨出版社”, 1963, 平壤, p.2.

8) 『百科全書』(4권), 科學百科事典出版社, 平壤, 1983, p.695.

고 生産實績 發表에서도 前年度 또는 分斷時點보다 몇배 増産했다는 式의 發表를 하고 있다.

북한은 軍事·經濟 併進政策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GNP의 20% 이상을 軍事費에 배분함으로써 經濟發展과 住民生活이 크게 制約받고 있다.

북한은 創建後 지금까지 소련으로부터 石油에너지와 각종 産業施設을 거의 援助形態로 공여받아 왔다. 최근 소련으로부터 石油供給價額의 國際時勢化와 硬貨決濟를 요청받고 있어 심각한 에너지난에 逢着하고 있다.

산업의 原動力인 電力生産이 크게 減少하고 있어 産業施設稼動率이 45%를 밑돌고 있다.

海外資本과 投資誘致를 겨냥하여 1984년 9월 制定한 合營法도 經濟의 구조적 矛盾 때문에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總 135 件의 合營實績中 57%에 해당하는 77件이 朝總聯商工人과의 合作이었다.

이러한 結果로 북한은 90년도에는 마침내 負의 成長과 심각한 食糧不足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經濟難을 극복하는 處方으로 계속해서 『自力更生路線에 입각한 増産·節約鬭爭』만을 강조하고 있으며,⁹⁾ 外資誘致를 經濟的 動機賦與의 方法에 의한 것이 아니라 日本과의 政治홍정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經濟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3) 南韓과의 關係

지금까지 南北韓을 根本的으로 規律하는 것은 『分斷體制』라는 기본틀이 있다.

分斷은 남북한 쌍방에게 政治勢力을 再編하고 政治理念의 범위를 制限하는 役割 뿐만 아니라 政權의 政治的 正當性을 강화하는 名分을 提供해 왔다.

북한은 勞動黨 規約에 “朝鮮勞動黨의 당면목표는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

9) 金日成의 1991년도 新年辭 및 最高人民會議 제9기 1차회의 決意(91년 5월 26일)

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의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여 『南朝鮮 解放』을 공공연히 宣言하고 있다. 日本帝國主義를 대신하여 美國帝國主義가 강점하고 있는 『南朝鮮』을 解放시켜야 한다는 論理는 北韓住民들에게 說得力을 가지고 敎養되어 왔다.

『南朝鮮 解放論理』는 2次大戰 이후부터 世界를 지배해온 『冷戰秩序』의 基本屬性인 東西兩大陳營間의 군사적 緊張造成과 정치적 對決이라는 陳營圈의 觀點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北韓의 軍備增強과 絕對權力的 統治行爲를 손쉽게 정당화시켜줄 수 있었다. 때문에 北韓은 對南關係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쉽게 妥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無條件 反對하고 엉뚱하게 해석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和解와 協力을 모색하는 平和共存時代로 뒤바뀌었지만 北韓은 여전히 對南對決政策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버릴려고 해도 이미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이 아닐까?

北韓은 이미 모든 점에서 韓國에 뒤지고 있다. 生活水準에서나 總體的 國力에서나 南韓에 比較가 되지 않으며, 時間이 갈수록 隔差는 더욱 벌어질 展望이다. 南韓은 항상 北韓을 代替할 수 있는 勢力으로 存在하고 있고 점차 그 힘을 늘여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獨逸의 吸收統一과 루마니아의 流血事態를 지켜 본 北韓은 危機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은 달리 選擇할 길이 없다. 밀려오는 民主化와 自由化의 물결을 遮斷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對南關係를 개선시키지 않고 오히려 對決意識을 고취시켜야 『資本主義의 汚染을 막아 體制的 純粹性』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이 한편으로는 南北對話를 진행하고 體育人交流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南韓내 反體制人士 및 大學生을 密入北시키고,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니 汎民族大會니 하는 統一戰線戰術을 계속 驅使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理由 때문이다.

3.北韓體制的變化要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主體思想 같은 排他的 思想體系와 經濟에서의 自立原則에 의한 自給自足經濟運用方式(Autarky)으로 엄격한 閉鎖社會를 구축, 金日成의 神政의 支配體制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으로 일기 시작한 東歐社會主義國家의 自由화와 民主化的 물결 그리고 東西冷戰秩序의 崩壞와 獨逸統一은 北韓體制에 심대한 影響을 주는 外的要因이 되었다. 게다가 8월 19일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엘친등 改革主義者들을 축출하려는 軍事政變이 社會主義 保守強硬勢力에 의해 恣行되었으나 3日天下로 끝나는 해프닝이 됨으로써 북한에서 期待하러 했던 소련내 保守勢力도 완전히 除去되어 버렸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식 社會主義를 固守하려는 북한에게 不可抗力의 선택을 強要하며 북한의 政策變更 및 體制變化를 誘發케하는 要因은 무엇일까?

북한의 變化를 觸發시킬 수 있는 要因은 形式的으로는 外部要因과 內部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內容上으로는 상호 聯關되어 있다. 내부요인은 自生的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外部要因의 影響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變數이다.

북한은 體制的 特性上 政治權力에 독립하여 自生的으로 성장한 社會勢力도 없고 政治의 力量을 가진 集團도 存在할 수 없기 때문에 北韓社會를 變換시킬 內部運動의 展開可能性은 거의 없다.

다만 外部의 影響으로 북한의 上·下層 社會構造가 變化의 衝擊을 받고서 비로소 體制變化를 加速할 수 있는 內部要因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北韓體制 變化를 觸發시킬 수 있는 要因을 (1)西方陣營 및 韓國과의 關係, (2)蘇聯 및 東歐圈과의 關係, (3)中國과의 關係 등

세가지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西方陣營 및 韓國과의 關係

國際冷戰秩序의 崩壞는 陣營論的 世界觀에 의한 對決의 論理와 政治秩序가 더이상 維持될 수 없음을 意味한다.

美·蘇간의 中距離 核戰力廢棄協定(INF, 1987. 12), 유럽배치 在來式 戰力減縮協定(CFE, 1990. 1), 戰略核武器 減縮協定(1991. 7) 등 軍事力에 의해 지배된 世界秩序를 청산하려는 美蘇共同努力이 可視化됨으로써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國際關係가 形成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蘇聯軍事政變 발생시 美國은 쿠데타를 강력히 非難하고 고르바초프의 復歸 등 合憲秩序 回復과 엘친 등 急進改革 民主勢力을 적극 支援해 주었고 계속된 美國의 對蘇穀物借款의 緊急供與로 유례없는 協力關係가 形成된 美蘇關係는 이제 東北亞에 남아 있는 冷戰의 殘滓를 제거할 段階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은 남북한 分斷體制를 冷戰秩序의 規律에 따라 管理함으로써 排他的 權力獨占을 維持하려는 북한에게는 中대한 威脅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하나의 朝鮮』政策을 내세워 對決的 分斷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逆說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朝鮮』을 외쳐대는 목소리가 클수록 分斷狀態 극복이라는 政治名分은 빛을 낼 수 있고, 大衆動員이 가능하며 政治카리스마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分斷狀態의 效率的 管理』야말로 北韓의 主體型 社會主義에 理論的 기초를 提供하는 것이다.

冷戰秩序의 崩壞와 더불어 한국의 對北韓 關係改善要求는 현재의 北韓으로서도 결코 受諾할 수 없는 威脅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0년도부터 自身의 어려운 國際環境의 처지를 美國, 日本 및 對南關係에서 그 突破口를 찾으려 하여 왔다.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對美·日 接近活動과 南北對話가 활발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蘇聯이 共產主義를 버리고 市場經濟改革과 民主主義를 內政의 基本秩序理念으로 설정한 후 북한에 대해 冷酷한 정도의 影響力 또

는 壓力을 行使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美國과 日本은 韓國과의 協力 및 紐帶強化의 基調위에서 對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接近을 하고 있다.

美·日은 한반도의 軍事的 對決解消, 緊張緩和 그리고 平和定着이 東北 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의 요체임을 認識하고 남북한 關係改善 및 平和體制 構築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同等하게 유엔에 加入하여 國際平和愛護國으로서의 責任과 役割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북한으로 하여금 國際原子力機構의 核 安全措置協定の 加入과 성실하고 완벽한 核査察을 受容할 것을 강력히 要求하고 있다.

또한 美·日은 북한에게 世界的 차원의 民主化, 自由化 추세를 거스르는 非民主적이고 暴力的인 政策拋棄와 조속한 開放·改革措置를 함께 促求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北京에서 14차례나 북한과 外交官 接觸을 가졌으나 6.25전 喪失死亡한 美軍遺骸를 送還받는 이외에는 別無成果였다.

그러나 미국은 向後 북한의 不可避한 態度變化를 예상하여 최근 (1991. 6) 스틸웰 前駐韓美軍司令官을 비롯하여 미국의 韓半島 專門家, 著名學者 및 官吏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과의 關係改善이란 카드를 對北壓力手段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제 蘇聯의 쿠데타이후 더욱 굳어진 美·蘇協力體制下에서 나온 미국의 要求를 북한은 더이상 버티어낼 수 있을지 疑問이다.

북한의 유엔加入決定도 不可抗力的 選擇이었다. 한국의 유엔加入이 既定事實化되어 있는 形局에 북한이 종래의 主張(남북한 單一議席에 의한 유엔加入)을 내세워봤자 國內外的으로 說得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1991년도에 북한이 한국과 함께 加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美·英·佛 등의 拒否權 行使가 豫想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북한과의 歴史的, 地政學的 관계로 인해 미국과는 對北韓 接近 目標과 原則에 있어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南北韓 分斷과 敵對의 對決關係를 일본의 國益에 최대한 活用하여 왔다. 政經分離原則을 앞세운 等距離外交路線에 따라 한국에게는 북한카드를 북한에게는 한국카드를 利用하면서 影響力行使를 極大化하여 왔다.

現在 북한은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經濟難을 解決하는데 일본의 資金과 技術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1990년 9월 일본의 『가네마루 신』議員의 北韓訪問을 계기로 本格的인 修交協商이 進行되고 있다.

同 協商에서 일본은 북한의 核安全措施協定加入과 성실하고 완벽한 核査察義務履行을 協商進展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南北間의 의미있는 進展을 위한 北韓側의 努力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核武器開發은 東北아시아의 平和를 破壞하며 일본의 安全에 중대한 威脅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核査察 受容을 강력히 要求하고 있다.

일본은 世界經濟 7대強國의 一員이며 막강한 實質軍事力을 保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核3原則(核武器生産·保有·搬入禁止)에 따라 非核保有國으로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外部環境에 절대 守勢로 놓여있는 現在狀況에서 體制維持의 가장 강력한 政治手段은 核武器 生産과 保有라는 사실에서 쉽게 核開發을 拋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본·미국과의 協商이 遲延不進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지난 7월 16일 비엔나에서 國際原子力機構 專門家會議에서 核安全措施協定에 假署名함으로써 미·일의 要求를 受容하는 자세를 보였다.

美·日은 북한측의 이같은 態度的 眞意를 疑心하고 있다. 비록 核査察을 受容한다 하더라도 북한측의 核施設과 核物質을 숨기거나 또는 國際原子

力機構의 核査察對象을 성실히 報告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核安定措置加入도 별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으로서는 당초 일본과의 修交를 代價로 일본으로부터 日帝의 韓半島 殖民地統治에 대한 賠償金을 받으려는 것이 目的이었으나 이제 核武器開發拋棄라는 새로운 要求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어려운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立場에서 북한은 巧妙한 打開策으로 韓半島 非核地帶化 創設을 내세워 북한의 核査察과 駐韓美軍의 核武器撤收를 連繫하여 論議하자는 주장을 하여 그들의 立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韓半島 周邊4強國 모두 북한의 核武器開發을 적극 反對하고 있는 現狀에서 북한의 意圖는 實現可能性이 거의 희박하다.

결국 북한은 核査察受容을 미·일과의 協商에서 최대한의 讓步를 얻어내고 난후 同意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북한의 對外카드가 사라질 경우 북한의 對外 및 對南政策對應은 北韓 本來의 意圖와는 다른 方向으로 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북한 修交協商의 걸림돌이었던 核問題가 원만히 妥結될 경우 南北韓 關係改善에 대한 일본측의 對北韓 要求는 緩和될 것으로 보인다.

(2) 蘇聯 및 東歐圈과의 關係

1989년도 前後로 하여 나타난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民主化·自由化의 改革과 社會主義理念崩壞의 도미노 現像으로 이들 나라들에 대한 南北韓의 立場은 서로 뒤바뀌게 되었다.

東歐圈 國家中에서 가장 먼저 大變革을 경험한 헝가리가 1988년 2월에 한국과 正式修交協定을 締結한 것을 始發로 하여 폴란드(1989년 11월), 유고슬라비아(1989년 12월), 체코슬로바키아(1990년 3월), 불가리아(1990년 3월), 루마니아(1990년 3월)등이 잇달아 한국과 國交를 開設하였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북한과의 理念的 紐帶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서 북한을 一方的으로 支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改革·開放을

懲憑하는立場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國際的 孤立感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들중 東獨의 西獨에로의 吸收統合과 루마니아 차우세스쿠政權의 悲慘한 沒落은 북한에게 큰 警鐘을 울렸다. 북한은 자칫 잘못 對處하다가는 이들 나라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恐怖感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改革의 餘波가 북한으로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東歐 및 蘇聯 留學生 2,000명을 急遽 歸國시키고 이들을 隔離收容하여 思想教育을 철저히 實施해야 했다.¹⁰⁾ 또한 平壤駐在 東歐外交官의 북한내 旅行도 平壤市內로 局限시켰다.

한편 獨逸式 吸收統合의 憂慮에 대해서도 남한을 反統一的 分裂指向勢力으로, 북한은 民族主體的 統一主導勢力으로 북한주민에게 宣傳煽動하여 北韓主導下에 統一實現의 當爲를 강조함으로써 謀免하려 하고 있다.¹¹⁾ 이렇기 위해서 북한은 南北對決關係를 계속 維持하여 북한주민의 緊張狀態가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때문에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한측이 제시한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와 3通合意書를 拒否하는 등 南北關係改善의 實踐意志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平壤指導部는 東歐圈의 改革思潮는 體制上層部에서 흡수하여 下層構造로 波及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判斷하는 것 같다.

그러나 蘇聯의 衝擊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성 싶다.

최근 몇년간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基調는 二元政策(two tracks)이었다. 북한과는 政治·軍事的 紐帶關係를, 남한과는 經濟的 協力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1990년 10월 1일 한국과 國交를 正常化하고 남북한 유엔同時加入을 지지함으로써 韓半島에 두개의 國家가 實在하고 있다는 『두개의 한국』(two Koreas)政策을 실천하였다. 한국과는 세차례의 頂上會談을 통해

10) 1990년 韓國에 귀순한 소련 留學生의 證言, 統一院.

11) 金日成은 1991년도 新年辭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吸收統合方式에 현혹된 남조선當局者들은 北方政策을 내걸고 請託外交를 벌이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고 南韓의 統一努力을 비난하였다.

兩國間的 긴밀한 友好協力關係를 보다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국의 對蘇經濟協力借款 30억달러 提供協定, 貿易協定, 科學技術協定 등 각종 協力協定이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은 지난 8월 19일 소련의 反고르바초프 軍事政變發生時 쿠데타를 反對하고 改革勢力의 기존 蘇聯政治秩序를 지지함으로써 쿠데타가 鎮壓된 후 고르바초프, 엘친으로부터 지지에 感謝한다는 親書를 받은 바도 있다.

소련은 북한과의 關係에서 軍事政變 이전까지는 양국간의 軍事代表團의 상호 交換訪問이 꾸준히 있어온 가운데 소련의 新型武器(MIG 29 등) 提供說이 흘러나오는 등 軍事部門의 協力關係는 지속되어 왔다.

北韓經濟에 차지하는 소련의 比重은 매우 높다.

소련은 1990년말 현재 北韓貿易의 51%를 차지하고 있고(북한의 총무역 규모는 46.6억불이며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도 13억불, 소련으로의 수출은 10.5억불 합계 23.5억불이다. 통일원 발표자료) 소련은 아직도 石油供給 주요국가이다. 소련은 1990년도부터는 石油供給의 硬貨決濟를 要求함으로써 90년도의 對北韓 石油供給이 종래의 140만톤 規模에서 44만톤으로 激減되어 북한의 에너지를 加重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북한은 國家創建後 1990년말까지 소련으로부터 30억루블의 長期借款을 받아왔다(군사지원은 제외). 이중 6억루블은 상환, 2억 2천4백만루블은 償還免除되었으나 22억루블(그때 그때의 환율적용 약 35억 달러)은 갚지 못하고 있다. 累積된 貿易赤字를 감안하면 현재 對蘇債務는 약 47억 6천 5백만달러(1991년 9월 3일 모스크바방송, 9월 5일 내외통신)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經濟借款 이외에도 총 3,000건의 각종 設計圖와 技術文件을 提供받았고 2,000명 이상의 技術者를 研修시키고 6,000명의 蘇聯技術者들로부터 技術指導를 받아왔다.¹²⁾

소련의 對北韓 經濟協力은 과거 46년간의 總括規模에서는 소련의 對韓國經濟協力規模를 상회하나 최근 2~3년 期間中の 소련의 남북한 經濟交

12) 統一院, 北韓經濟 綜合評價, 1991.

流 및 協力規模에 있어서는 比較가 되지 않으며, 協力の 性格도 소련의 對 韓國經濟依存으로 소련의 對北韓 支援과는 反對된다.

이같은 북한의 높은 對蘇軍事 및 經濟依存도와 한국의 對蘇經濟協力提供 등의 사실은 經濟中心 自國實利外交의 오늘날의 世界的 趨勢로 볼 때 소련의 對韓關係는 보다 緊密하고 友好的으로, 對北韓關係는 점차 疎遠해질 것을 豫告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은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도 남북한 平和共存構築이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秩序를 바라는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政策에도 符合될 뿐더러 韓蘇協力關係에 있어서 한국측의 要求事項을 支援해주는 外交의 效果도 擧揚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측에 대하여 南北韓 關係改善과 平和定着의 努力을 다할 것을 促求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 왔다.

그동안 세차레나 南北韓 高位級會談이 개최된 背景에는 이러한 소련측의 促求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소련의 要求를 마지못해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은 蘇聯內에서 自身の 理念的 同志勢力인 保守陣營의 軍事政變이 발발하자 즉시 이를 支持하는 反應을 보이게 되었다.¹³⁾

그러나 軍事쿠데타가 失敗하고 그 結果로 소련은 共產黨마저 解體하고 社會主義의 要素를 모두 없애 버리고 새로운 自由民主國家로 換骨奪胎함으로써 북한과는 理念과 政策이 相反되는 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軍事政變때 보인 북한측 態度로 兩國關係는 感情的 次元에서 이미 크게 損傷을 입고 있다.¹⁴⁾

따라서 兩國은 理念과 政策路線이 서로 다르고 이미 感情的 損傷까지 입

13) 북한은 쿠데타 3일 기간중 쿠데타 周到勢力인 非常事態 8人委員會가 발표한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은 소련을 混亂狀態에 빠트리고 暴力과 不法의 소용돌이만을 일으켰다”는 呼訴文과 각종 布告令만을 報道할 뿐 소련국민과 엘친의 抵抗活動 사실은 전혀 報道하지 않았다.

14) 蘇聯政府는 쿠데타 鎮壓後 1991년 8월 22일 새벽1시 事態經過說明 및 고르바초프大統領 復讐 通報를 위해 모스크바駐在 25개국 外國大使를 초청했다. 초청국 중에는 韓國은 포함되었으나 北韓은 배제되었다.

고 있어 앞으로는 關係가 더욱 疎遠해지고 惡化될 可能性이 높다.

兩國間에 앞으로 展開될 可能性이 있는 事態發展을 豫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소련이 北韓에 취할 수 있는 措置들을 살펴보면, ①對北韓軍事支援을 일체 中斷하며 ②朝·蘇貿易은 國際市場 去來原則과 硬貨決済方式으로 對等한 關係에서 進行하며 ③對北韓 經濟借款을 비롯한 施設援助·技術援助 등 모든 經濟援助를 中斷하며 ④밀린 債務履行을 촉구하며 ⑤核査察受容을 促求함과 동시에 核과 有關한 對北韓 支援一切를 계속 中斷하고¹⁵⁾ ⑥北韓指導部の 改革·開放政策 實踐을 촉구하고 ⑦나아가 북한이 脫冷戰의 아시아 協力秩序로 編入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남북한 關係改善과 平和定着의 制度化가 시급한 先決課題임을 提示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련측 措置에 대해 북한은 우선 지난 蘇聯軍事政變 때 보인 북한의 態度를 解明하면서 소련과의 關係好轉을 試圖하려 할 것이며,¹⁶⁾ 한편으로는 主體路線을 더욱 強化시키고¹⁷⁾ 다른 한편으로는 中國·日本·美國 그리고 對南韓關係에서 突破口를 모색하려는 政策對應을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3) 中國과의 關係

중국은 天安門事態(89년 6월 4일) 이후 政治的으로는 社會主義이데올로기를 信奉하면서 經濟的으로는 西方陣營과의 交互를 통해 國家利益을 增大시키려는 二元的 政策을 취해왔다. 改革과 開放을 漸進的으로 추진하여 教條主義의 입장과 接木시키려고 試圖하여 왔다. 그러기 때문에 急進的 改革主義의 영향을 遮斷하는 것이 重要的 政治的 課題였다.

15) 1991년 8월 23일 모스크바放送은 論說에서 北韓核査察의 지연은 單純히 북한측의 責任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16) 북한 外交部長 김영남도 8월 22일 平壤駐在 소련대사에게 “고르바초프의 大統領 復歸를 환영하며 우리는 始終一貫 고르바초프를 支持해 왔다”고 하는 북한의 解明性 입장을 공식 通報하였다.

17) 북한은 소련의 쿠데타와 有關 8월 20일자 勞動新聞 論說에서 『社會主義 勝利가 歷史的 必然』이라는 題下에 “人類가 社會主義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歷史發展의 法則”이라고 하였다. 또한 8월 26일 金正日은 『청년은 黨과 首領에 무한한 忠誠을 바치는 青年戰士가 될 것이다』라는 便紙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북한과 그 脈格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소련의 軍事政變에 대하여 북한이 그러했듯이 同事態를 소련의 內政問題라고 하면서 자신의 社會主義體制와는 無關하다는 입장을 表明하였다.¹⁸⁾

원래 중국과 북한과의 關係는 地政學的·軍事的·外交的 그리고 歷史的으로 긴밀한 特殊關係에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變化를 觸發시킬 수 있는 位置에 있으면서도 逆으로 北韓體制 守護의 防波堤 役割도 하여 왔다.

소련의 軍事政變에서 보여준 兩國의 類似한 態度로 볼 때 北韓·蘇聯關係가 경색·악화국면에 접어들 경우 북한은 中國에 크게 依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現在의 우호적인 중·소 관계를 考慮하여 북한을 支援하는 데에 制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소련이 앞으로 自由民主國家로 急旋回되었을 경우,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엄청난 負擔을 考慮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自國의 經濟與件上 북한에게 소련을 대신하여 軍事 및 經濟支援을 해줄 能力이 없다. 더군다나 중국은 91년도까지는 豫定된 對北韓 友好價格과 物價決濟方式에 의한 石油供給條件마저 더이상 延期해줄 수도 없는 형편에 소련의 對北韓 供給分量까지 負擔한다는 것은 전혀 不可能한 일이다.¹⁹⁾

한편 중국은 美·日과의 友好關係도 계속 維持해야 할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市場開放 및 人權保護 要求 壓力에 對處해야 할 입장이고 또한 일본으로부터도 經濟協力 資金을 提供받아야

18) 중국의 王震 國家副主席은 소련 쿠데타와 관련 新疆省 순회연설에서 “내외의 敵對勢力이 기도하는 體制變革에 대해 투쟁을 벌여야하고 社會主義 制度를 견지해야 한다”고 力說한 점과 북한이 蘇聯政變事態중 黨·國家機關誌 및 國營放送(평양, 중앙)에서 고르바초프를 非難하고 우리식 社會主義 固守를 역설한 것이 똑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될 수 있다.

19) 북한의 김영남 外交部長은 蘇聯政變이 실패로 끝난 직후 8월 24일 중국을 급거 방문, 同問題를 協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 절실한 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美國·日本·蘇聯 및 한국 등의 심각한 反對를 무릅쓰고 북한과 運命的 共同步調을 취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남북한 유엔加入과 북한의 核査察受容問題에 대한 중국의 態度가 이를 立證한다고 한것다.

유엔加入의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關係에서 이미 30억불이 넘는 貿易과 트너로서(89년말 현재) 중국은 유엔加入을 反對할 實益이 없을 뿐더러 國際社會에서의 名分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說得할 수 밖에 없었다.

核査察收容問題의 경우도 같은 立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일본 『가이후』總理의 中國訪問時 중국의 『강택민』黨總書記는 중국의 核擴散禁止條約加入 의사를 表明함으로써 일본의 對中國 核憂慮를 씻어주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중국도 북한의 核武器開發拋棄 촉구를 間接的으로 示唆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만일 중국이 最近 소련에서 進行된 大激變에 影響받아 제2의 天安門事態 또는 意外的 政治的 突發事態가 발생하여 現 保守指導部가 무너지고 民主化·自由化·開放化가 加速的으로 전개된다면 북한은 또한번 심각하고 決定的인 體制變化의 挑戰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4. 金正日權力承繼와 體制變化

北韓體制가 안고 있는 최대의 政治懸案課題는 金日成의 政治權威를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순탄하게 그리고 安定되게 넘겨주는 作業이다.

一般的으로 民主的 政治體制에서는 리더쉽의 變化는 政策의 差異만 있을 뿐이나 全體主義體制에서의 리더쉽의 變化는 國家의 根本秩序까지 變化시킬 수 있다. 북한의 경우 後繼者의 權力承繼는 主體體制的 繼承이라는 측면에서 進行되고 있다는 점에서 體制全般에 걸쳐 動搖를 가져올 것이 分明하기 때문에 북한의 政治的 장래를 分析하는 데 核心的인 문제가 된다.

金正日の 權力承繼作業은 20년전부터 始作되었다. 1971년 勞動黨 機關紙인 『勞動者』 7월호에 掲載된 論說에서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革命爲業은 아들이 함으로써 實現할 수 있다”는 主張을 펴면서부터이다.

金正日は 1973년 9월 黨秘書局의 組織 및 宣傳煽動擔當秘書로 任命받으면서 後繼者로 浮上하고, 1974년 2월 勞動黨中央委員會 第5期8次 全員會議에서 後繼者 翁鎰운동이 本格化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金日成의 後繼者로 알려져 왔던 金英주와 그의 追從者들(남일, 김동규 등)이 權力의 中心部에서 潛跡되는 한편 金正日을 擁護하는 金春추, 오진우 등의 地位가 격상되면서 權力中心部에 變動이 일어났다.

그리고 金正日이 이끄는 3大革命小組運動의 必要性이 강조되고 이들 小組員들의 活動이 社會 全部門에 걸쳐 擴大되는 등 下部組織에서의 金正日의 支持基盤이 구축되었다. 1975년 10월부터 金正日資質禮讚論이 公公然히 발표되었고 金正日의 이름 대신에 『黨中央』이라는 別稱을 사용하고 黨中央의 實績浮刻 腐心하였다.

1980년 10월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常務委員(서열 4위), 秘書(서열 2위), 中央軍事委員(서열 3위)으로 選出됨으로써 後繼者로 公式化 되었다.

이때부터 金正日은 主要產業・建設現場에 金日成의 『現地指導』와 類似한 『實務指導』를 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그의 活動도 金日成과 同格으로 『現地指導』로 發表되고 있다.

1984년 이후부터는 中國・蘇聯의 首腦級 指導者들을 직접 接見하고 新年賀狀을 交換하는 등 北韓을 代表하는 外交活動도 하고 있다.

마침내 1990년 5월 政務院 國防委員會 第1委員長에 起用되어 軍部の 核心部를 掌握하여 後繼者의 立地를 완전히 굳혔다. 金正日의 權力承繼 公式化는 時期의 選擇 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金正日의 權力承繼過程을 보아온 專門家들 사이에는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肯定論과 失敗할 것

이라는 否定論이 엇갈리고 있다.²⁰⁾

肯定的 見解는 다음과 같은 理由를 들고 있다.

①金日成의 主導下에 이미 權力承繼過程이 오래전부터 周到綿密하게 進行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北韓社會에서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挫折된다면 극심한 混亂과 權力鬭爭이 發生할 수 있는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支配層으로서의 金正日에게 다소간 不滿이 있더라도 權力承繼를 認定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②金正日是 北韓權力體制와 正統性을 부여하는 黨과 物理的 強制力의 源泉인 軍에서 이미 指導的인 位置를 掌握하였다. ③黨·政·軍의 엘리트 充員에 있어 이미 革命1世代는 退陳했던지 또는 象徵的 地位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要職은 金正日을 追從하는 엘리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金正日과 함께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과 金日成綜合大學 출신으로 金正日政治體制와 자신들의 運命을 같이 하는 親衛勢力이기 때문에 金正日體制 守護의 尖兵役割을 할 것이다. ④權力承繼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正當化 作業과 金正日의 業績讚揚으로 權力承繼의 正統性이 상당한 水準으로 구축되어 있다. ⑤金正日의 權力承繼에 대하여 中·蘇 및 기타 다른 나라의 贊成 또는 反對 등의 參見은 內政干涉이 되며, 金正日權力承繼와 관련하여 影響力行使를 거의 할 수 없다. ⑥外部世界의 民主化 思潮의 浸透憂慮는 承繼體制的 危機管理에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監視·監督 및 思想敎養事業 등 內部統制와 人民大衆의 思想的 結束을 強化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다.

否定的 見解는 다음과 같은 理由를 들고 있다.

①金正日是 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의 統治能力과 政治經驗이 없다. ②

20)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관한 研究는 많이 있다. 그 중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정현수, 이동선 “북한의 權力構造의 變動과 權力承繼의 전망” 統一院, 「北韓·統一研究 論文集-政治分野」, 1990년 2월 pp.162~169와 고유환, 권오운 “북한의 權力엘리트 充員과 權力變動에 관한 研究”, 統一院 같은 책, pp. 295~323, 그리고 徐鎮英, “北韓 權力 및 社會變化 對備計劃 研究”, 統一院 1990. pp.116~128, 金容浩 “北韓政治體制的 連續性과 政策의 變化” 韓國政治學會 主催 세미나 발표논문, 1990년 6월 등을 참고할 것.

革命1世代에 비해 比較的 專門性을 重視하는 엘리트를 中心으로 한 金正日親衛勢力들은 그 忠誠心과 結集力에 있어서 脆弱하다. 이들은 만일 金日成 死後 強力한 政治的 挑戰을 받을 경우에는 쉽사리 崩壞될 수 있다. ③改革・開放의 國際環境을 拒否하고 긴장된 動員體制를 언제까지나 維持할 수 없다. 金日成의 獨裁權力體制樹立이 可能했던 것은 冷戰的 國際秩序環境이었다. 이제 그러한 時代는 지나갔으며 남한으로부터는 關係改善의 要求가 줄기차게 치닫고 있고 이를 默殺하기도 어려운 狀況까지 왔다. ④國際的 孤立化와 慢性的인 經濟難에서 오는 北韓住民의 不滿이 金正日勢力의 獨走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政治勢力과 結合하여 強力한 反金正日戰線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들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처럼 對立되는 兩 見解는 모두 可能性과 蓋然性을 가지고 豫測하고 있다. 사실 北韓의 政治的 將來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斷言할 수는 없다. 未來의 政治狀況은 최근의 蘇聯軍事政變失敗 이후 激變을 거듭하고 있는 事例를 보더라도 決定的 變化는 대체로 突發事態 發生으로 엉뚱하게 進行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經驗하여 왔다.

그러나 現在의 狀況을 基準으로 하여 金正日權力繼承의 將來를 類推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① 金日成 生存時 權力을 繼承하나 金日成은 後見人 役割을 계속한다.
- ② 金日成 生存時에는 權力繼承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金日成 死亡과 同時 金正日도 함께 權力核心에서 逐出된다.
- ④ 金日成 死亡과 함께 金正日이 權力을 일단 繼承하나 리더쉽 強化에 失敗한다.
- ⑤ 金日成 死亡과 함께 金正日이 權力을 繼承하고 리더쉽 強化에 成功한다.

以上の 5가지 시나리오의 順位는 앞에서 살펴 본 肯定的 見解와 否定的 見解를 綜合檢討하여 그 實現可能性을 나타낸 것이다.

첫번째의 實現可能性 類型은 金正日體制에 不安을 느낀 金日成이가 中

國 등소평의 後繼體制構築方式을 배우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련의 民主化 激變으로부터 오는 衝擊을 줄일 수 있고 對美·日 交渉에서 成功한다면 1992년말이나 1993년도 上半期에 勞動黨 第7次大會가 開催되고 金正日의 權力繼承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權力繼承을 원만히 進行시키고자 北韓이 안고 있는 어려운 負擔을 자신의 손으로 解決하여 金正日에게 順탄한 統治의 길을 열어주고자 할 것이다. 즉 金正日에게 政治的 負擔과 特性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를 金日成 자신이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權力移讓期間을 1992년말~93년 上半期로 잡는 것은 남한의 權力移讓期와 맞물려서 實行하는 것이 政治的 負擔이 적다는 判斷에서이다.

金日成은 國家主席職과 黨總書記職을 모두 移讓하나 등소평이 그랬던 것처럼 金正日의 權力基盤을 지켜주기 위해 軍事權을 一定期間 掌握하여 後見人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實現可能性은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權力을 빨리 繼承시키고 싶으나 아직 繼承시킬 内外形便이 여의치 않으며, 이런 형편은 金日成의 年齡을 고려하면 金日成 生存時에는 到來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크게 依存해온 소련이 이제 完全히 떨어져나간 狀況에서 北韓의 危機感은 매우 高潮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 内部의 政治的 問題는 덜 급한 것이 되어버렸다. 비록 北韓은 90년도부터 소련의 經濟援助가 거의 中斷되었기 때문에 蘇聯으로부터 오는 經濟的 衝擊을 이미 상당히 吸收한 것으로 보이지만 軍事的으로는 蘇聯에서 軍事政變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緊密한 友好 權力關係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蘇聯의 軍事政變失敗로 蘇聯에서 親北韓 性向을 가지고 있던 黨 및 保守勢力이 逐出됨으로써 北韓이 軍事安保의 側面에서 받는 衝擊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③과 ④의 경우는 金正日이가 權力에서 逐出되는 시나리오이다. 그것은 現 指導部의 重鎮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金日成의 權威에 눌려 金正日에 忠誠하고 있을 蓋然性이 클 뿐만 아니라 一般 住民들 속에는 金日成은 尊敬하나 金正日是 믿을 수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는 점을 考慮

해서이다.²¹⁾ 金正日逐出政變은 軍部の 쿠데타, 政治엘리트의 黨權掌握鬭爭方法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政治體制的 類型을 軍部執權, 集團指導體制, 金日成을 대신한 指導者에 의한 單一指導體制的 登場을 생각 할 수 있다.

5. 北韓의 政策變化展望

北韓은 지금까지 外部의 影響이나 壓力으로 마지 못해 취하는 改革·開放措置도 主體型 社會主義體制를 毀損시키지 않는 範圍內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신중하게 試圖하는 彌縫的인 政策으로 對應하여 왔다. 마치 東歐大變革의 와중에서도 開放·改革을 극히 制限的으로 하고 있는 알바니아와 비슷하다.

主體體制的 既得權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外部思潮와 情報의 流入으로 『主體社會의 純粹性』이 汚染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북한이 취한 一連의 變化試圖도 이같은 措置에 불과하다.

유엔에 加入하고나서도 남북한간에 敵對的 對決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남과 북은 하나의 國號로서 하나의 議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종래의 主張을 強辯하고 있다.²²⁾

南北韓 關係도 自己式대로만 이끌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南北高位級會談, 體育會談 등 각종 南北會談을 자기의 便宜에 따라 中斷·遲延·膠着시키는 한편 統一戰線戰術의 攪亂을 劃策하는 行事的 개최를 主張하고 있다.

南北韓 人的·物的交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公開的으로 個人的 次元에서 板門店을 經由, 北韓을 訪問한 사람은 전혀 없다. 物資交易도 第3世界 仲介人을 통한 間接交易만을 固執하

21) 최근 북한을 訪問한 사람이나 中國에 유학한 北韓學生들 사이에 이러한 말들이 성행하고 있다 한다.

22) 北韓外交部의 유엔加入決定 聲明 발표 91년 5월 27일.

고 있다.²³⁾ 1988년 10월부터 1991년 7월까지 南北韓 間接交易規模는 약 1억 4천4백만달러에 이르며 이중 北韓產 物品의 韓國搬入은 210건에 1억 2천만달러, 韓國產 物品의 對北韓 搬出은 10건에 1,737만달러이다. 1991년도에 間接交易은 더욱 활발해져 7개월만에 韓國搬入 131건 7,362달러, 對北搬出은 5건 1,257만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北韓이 直交易을 拒否하는 理由는 南韓의 對北韓 優越實相이 北韓側에 傳達되는 것을 遮斷하기 위해서이다.

北韓은 아직도 계속 낮은 水準의 產業化程度를 維持하면서 現體制의 安定을 圖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금까지 對美·日 關係改善을 통한 經濟協力 誘致를 時急한 문제로 認識하지 않았다.

1984년부터 實施해온 合營法에 의한 合作事業이 海外資本과 技術誘致에 失敗하였으나 그 失敗의 根本原因을 적극적으로 解決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北韓의 自力更生路線과 生産管理方式에 대한 全面改革을 隨伴하는 措置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蘇聯의 民主化 大激變으로 지금까지의 狀況과는 판이한 새로운 狀況이 북한에게 큰 威脅으로 다가오고 있다.

北韓指導部가 對内外의 改革·開放措置에 새로운 認識으로 對應하지 않다가는 體制崩壞를 맞을 수 있는 切迫한 상황이다.

現 北韓體制가 危機打開策으로 선택할 것으로 豫想되는 政策代案을 豫見할 수 있는 기간내 狀況變化를 고려하여 推論해 보기로 한다.

向後 北韓의 變化試圖은 中國의 天安門事態 以後의 方式을 본뜬 可能性이 크다.

政治的으로는 여전히 社會主義이데올로기를 信奉하는 가운데 權威主義의 政治勢力이 계속 支配하고, 經濟的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開放·改革조

23) 1991년 7월 下旬 남한 쌀 5,000t이 목포항을 出港, 나진항에 도착한 直交易이 단 1건이 있었다.

치를 취하는構圖이다.

經濟發展目標을 合理的으로 設定하고 的욕적인 經濟開發 모델을 提示할 것으로 보인다. 制限된 資本과 낙후된 技術與件上 不均衡 經濟成長政策에 입각한 高度經濟成長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한국의 經濟成長 모델과 類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資本・技術協力으로 鐵道・港灣・道路 등 社會間接施設을 擴充하고 老朽施設交替 등으로 生産力을 增進시키려 할 것이다. 이 경우, 勞動力 充當을 위해 兵力規模 減縮이 필요해진다.

經濟의 基本政策을 輸出指向政策으로 轉換하는構圖이다.

對外的으로는 미국・일본은 물론 全世界 모든 未修交國家들과의 修交를 推進할 것이다.

북한은 核武器의 開發拋棄와 완벽한 核査察條件을 收容하는 대신 미・일로부터 經濟協力資金 및 技術을 비롯한 對北支援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 내려고 할 것이다.

이때 海外에서 提供받은 經濟協力資金은 資金供與 條件上 政治的 消耗 經費로 쓸 수 없고 純粹經濟投資費로만 使用해야 하므로 北韓經濟發展에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對日經濟 예측화가 크게 憂慮된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당연히 軍事費를 줄여야 하며 따라서 軍備減縮을 試圖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북한의 人權實態調査 및 人權保護를 강력히 要求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修交가 遲延될 수도 있으며 또한 미국의 協力誘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關係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은 困難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과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劣惡한 北韓은 人權問題에 대해서 진지한 改革措置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對南關係에 있어서도 『하나의 朝鮮』政策路線을 堅持하면서 실제로는 南北韓 平和共存制度化 措置에 肯定的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統一戰線戰術次元에서의 對南政治攻勢를 계속 견지하면서도 韓半島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을 촉구하는 周邊強大國과 韓國측 要求에 따라 韓半島 休戰體제의 平和體制轉換을 위한 平和協商을 비롯하여 다방면적 南北對話 개척이 豫想된다.

南北高位級會談에 거는 周邊國의 期待를 認識하여 外形의 이나마 부분적인 會談結實을 生産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92년 下半年 ~ 93년 上半期가 南北韓 공히 權力轉換期가 된다는 점에서 南北韓 頂上會談이 개최될 可能性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것은 金正日後繼體제의 政治的 安定에 대해 한국측의 政治的 理解와 周邊國家들의 金正日의 政治力量에 대한 높은 評價를 얻을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 物資交流는 여전히 間接交易이 主從을 이루고 直交易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人的交流는 北韓全域에의 自由로운 旅行과 活動은 상당기간 制限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剝奪感에서 오는 不滿을 고려해서이다.

制限的인 物資交易에 反해서 北韓지역내의 經濟特區(두만강특구, 금강산특구 등)와 仲介貿易基地(先鋒港-舊雄基港)에 대한 南韓의 經濟投資와 協力을 적극 誘致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 理由는 同地域內의 南韓의 經濟活動이 북한체제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變化試圖은 모두 金正日의 治績으로 浮刻될 것이나 北韓體制變化에 주는 影響의 정도에 따라 變化試圖의 內容, 幅, 그리고 速度가 調整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體制維持를 目標로 한 政策對應이라는 면에서 複數政黨制 導入, 國民의 自由로운 政治參與 등 政治의 民主化, 多元化와 資本主義의 根幹인 市場經濟原則 등의 體制的 變革措置는 결코 容納될 수 없을 것이다.

北韓指導部가 변화한 狀況에 맞는 改革開放措置를 계속 拒否할 경우에

는 體制守護保守勢力과 新進改革勢力間의 심각한 갈등이 惹起될 可能性이 높다.

이때 改革勢力集團은 현재 權力核心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專門的 能力과 經驗을 갖고 權力指導部 근처까지 오른 사람들로 構成될 것이다. 이들은 海外見聞도 넓고 比較視角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專門學識과 素養을 가지고 合理的 思考를 하는 사람들로써 北韓體制에 대해 평소 矛盾을 느끼고 改革意志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莫強한 權部에 挑戰할 수 있는 힘은 역시 軍部엘리트와 結合하여야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결국 루마니아형의 流血事態를 맞이할 憂慮도 있다. 루마니아型 事態 再現防止를 위한 北韓權力層이 強壓的 統制를 구사한다면 周邊國들로부터 심각한 壓迫을 받게되며 이는 결국 指導部 瓦解를 재촉하는 結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第3段階 變化는 결국 現指導部の 全面改替와 根本的인 開放·改革措置로 북한이 民主化·自由化되는 段階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北韓體制가 變化했다고 해서 東獨과 같은 式으로 한국에로의 吸收統合으로 歸結될 것으로 速斷할 수는 없다.

統一은 南北韓이 理念과 國力水準 등 여러면에서 相應性を 높이는 가운데서 南北韓 國民의 體制選擇의 問題이다.

낮은 水準의 北韓體制가 瓦解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統一의 好期라고 생각하는 것은 禁物이다.

우리는 아직 政治力, 決濟能力 그리고 社會配分 등의 諸 側面에 있어 北韓을 受容할 準備가 되어있지 않다.